



단군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에는 환웅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환웅은 사람들을 돋고 싶어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음을 알려 주었어요.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말했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은 마늘을 건네며 말했어요. “참고 기다리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곰은 마늘을 먹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루하루, 꾹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기다리기 힘들어 숲으로 돌아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곰은 사람이 되었어요.



환웅과 곰 여자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단군이에요. 사람들은 고조선이라 불렀어요.